

정권교체기, 정치사회적 균열·갈등 커진다

김선빈 연구원이 본 올해의 한국사회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각 사회집단별로 이해관계가 갈라져 있는 정책쟁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체결, 양극화, 부동산, 기업정책, 지역균형발전, 북핵 문제, 고령화·저출산,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나아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사회적 활력을 복원하는 한편, 후발국의 추격을 뒤로 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전략의 설계 또한 매우 중요한 때이다.

사회적 에너지를 응집하여 이와 같은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가져온 1987년 체제를 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2007년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신년의 한국사회는 상충적 조건에서는 우려되는 요인이 많지만 새로운 한국에 대한 기대 또한 큰 한 해이다.

FTA·양극화·부동산 등 난제 산적

2007년의 키워드는 무엇보다 12월 19일 실시 예정인 제 17대 대통령 선거이다. 정부의 정책 운영과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년 벽두부터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치 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먼저 각 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론되던 인사들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군으로 가시화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정쟁에 대한 후보진영의 대립이 예각화할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참여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 4월 25일 이후에 번복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의 중심이 확인되고, 새로운 인물 경쟁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격화되는 등 정국구도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주의 사고 폭넓게 확산

한편, 정치적 대립의 고조와 함께 집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고, 두 현상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 구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적 의제의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우선시되면서 정책일관성의 유지, 신속하고도 통합적인 의사결정, 사회적 협의구조의 구축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핵심적 정책현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정책조정시스템이 약화되고, 민생 현안의 입법화에 필수적인 행정부와 국회간의 협조관계도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기존 정책현안의 해결 지연과 함께, 새로운 사회 쟁점이 선거 진행과정 중 부상하면서 사회갈등이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미 사회 전체가 참여하

는 의제로 전환된 부동산·교육·지역균형발전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갈등의 경우 일부 정파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선 레이스 초기 형성된 정책 경쟁의 부산물이지만, 부분적으로 실용주의적 정책사고를 진전시키는 순기능의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선전 중반 이후에는 후보 대결구도가 압축되면서 정책 경쟁이 주변화되고 사회적 균열·갈등을 반영한 대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권익보호 등 '탈근대적 갈등'도

이념·지역·계층·노사 갈등 등 전통적 갈등 축과 함께 환경, 소수자 권익 보호 등 탈근대적(post-modern) 갈등 축이 추가되면서 복합적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남북정상회담,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체결 등 남북관계의 변동 및 미국과 관련된 정책 현안이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론이 갈리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등 정치사회적 균열이 다층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의 표출 양상은 보다 복잡하고 심각해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국의 변동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조정형 리더십보다는 관리형·안정형 리더십에 안주하면서 갈



올해 한국 사회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한미 FTA 체결,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고령화·저출산,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등에 따른 갖가지 사회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반FTA 시위. /내량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치 대립·레임덕 심화, 사회정책 조정 시스템 약화 정부 조정기능 제약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심화 소득계층간 격차·시민사회 이념 간극 더욱 확대될 듯

다. 자칫하면 이러한 기대와 단체장의 과잉 의욕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국토 개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정책 이슈가 선거쟁점이 되면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다중적으로 연루된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병리현상 증가 사회안정성 침식

또한 양극화 경향의 심화와 사회병리현상의 증가로 사회적 안정성이 침식될 수 있다. 소득계층 간 격차, 시민사회의 이념적 간극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위 20% 소득계층은 지난 3년간 10%를 넘는 가계적자를 보이고 있어 40%선에 육박하는 가계적자를 쌓고 있는 상위 20% 소득계층

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력 범죄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검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국민이 범죄 피해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반사회적 병리현상이 심화될 조짐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 안정에 균열이 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소외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이완되기 쉬운 정권교체기의 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7년 한국사회는 정치·사회적 변수를 고려할 때, 두터운 먹구름에 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 세월을 반추할 때, 한국사회는 10년 주기로 큰 변화에 직면해왔다는 점도 경제·사회주체들의 면밀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1970년 말의 오일쇼크와 10·26 정변, 1987년 민주화 이행과 경제체질의 변화, 그리고

1997년 위안위기와 IMF 관리체제의 성립 등 실로 굵직한 사건들이 10년을 마디로 펼쳐졌다. 이와 같이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비사상한 각오로 경제·사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7년에 기본적으로 내수 여력 확대를 통한 내·외수 균형을 도모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갈등에 관한 위험관리에 주력하면서 중도통합적 국정운영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다양한 정책 교란 요인과 현안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능력의 확충이 긴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능력은 정책과정에서 간여하는 주체들이 단거적인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정책조합 설계에 합의할 때, 견고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끝>

■ 김선빈

▲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대학원 비교정치 전공 ▲고려대 대학원 정책학 전공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정책 전문위원 ▲(주요 저서)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공저) 한국사회갈등구조에 대한 이해(공저)



하나투어 HANATOUR

2007년 謹賀新年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福 세계가 인정한 하나투어를 만들어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글로벌 여행종합그룹으로서 세계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광 주

- 반도관광 (대표: 선정식)** [501-024] 광주 동구 금남로4750번지 ☎ 062-223-3032
- 하나투어세정아울렛점 (대표: 서찬주)**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1326 세정아울렛 3층 ☎ 062-464-8000
- 이마트 광산점 (대표: 김진일)** [500-080]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8-30미트 1층 ☎ 062-945-7500
- 롯데마트삼전점 (대표: 민정재)** [501-024] 광주 광산구 쌍암동 694-3 롯데마트 2층 ☎ 062-973-9113
- 하나항공여행사 (대표: 김현숙)** [501-700] 광주 동구 금남로371-11번지 하나빌딩 1F ☎ 062-419-2000

- 유니버시티여행사 (대표: 이점삼)** [500-04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704-3 ☎ 062-522-2255
- 모든나라여행사 (대표: 박승희)**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351-7 2층전남대병원 ☎ 062-521-2100
- 가림여행사 (대표: 정상준)** [503-060] 광주 남구 봉선동497-26 3층 ☎ 062-653-5250
- 신세계이마트점 (대표: 윤기주)** [501-080] 광주광역시 서구 화동동12-13 광산역704미트 1층 ☎ 062-360-0166
- 남해관광 (대표: 박항식)** [501-025] 광주광역시 서구 구암동104-4 하나투어전관 ☎ 062-225-5544
- 송광여행사 (대표: 나승재)** [502-827] 광주 서구 치평동 266-192송광우유유류부리 ☎ 062-383-1133

- 삼성항공여행사 (대표: 심재순)** [500-110] 광주 북구 문흥동1002-1 (조흥은행3층) ☎ 062-261-0088
- 이마트등광주점 (대표: 김용석)** [501-080] 광주 동구 개령동100-11 이마트광주점 1층 ☎ 062-529-7222
- 하나빌드 (대표: 김기문)**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59번지 2층 ☎ 1577-0658

전 남

- 초원여행사 (대표: 서조원)** [530-390] 전남 목포시 상동1134 ☎ 061-242-2000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 여행전문가와 상의하세요~